

아시아인 연대 통한 네트워크 구축 성과

한·중·일 등 11개국 저널리스트·학자·NGO 관계자로 구성

2박3일 부산 회의 마친 '아시아 리더십 펠로' 멤버 국제교류기금·국제문화회관 공동시행

"같은 아시아인으로서는 공동의 아픔을 가지다보니 쉽게 단결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대해선 알고 있었는데 부산의 민주화 노력은 새롭게 인식했어요."

지난 28~30일 2박3일 동안 부산을 방문하고 돌아간 '아시아 리더십 펠로' 멤버 46명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탄 등 아시아 11개국에서 초청된 저널리스트·NGO 관계자, 학자 등 다양한 자적인 그룹이었다.

'아시아 리더십 펠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국제교류기금(www.jpfr.or.kr)과 일본의 국제문화회관(www.i-house.or.jp)은 "올해가 아시아 리더십 펠로"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여서 과거의 참가자 20여명을 다시 초청해 되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일본 '후쿠오카회'의 만 예정했으나 아시아의 문제를 다뤄야 고민하면서 연대한다는 의의도 살펴 가장 적절한 국가이자

시인 부산까지 옮겨와 '부산회의'를 이해적으로 갖게 된 것이다.

부산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들은 비공개 '부산회의'를 연 것 외에 부산민주공원을 단체 방문했거나 하하 '역사코스' (유엔기념공원~부산박물관~전통찻집)와 '시민운동코스' (동남골~아름다운 가게) 등 그룹으로 나눠서 일반 관광객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산 익히기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후쿠오카 부산회의"에 참가한 스리랑카 출신의 창드라카 세페리(48.여.스리랑카 여성NGO프로그램 디렉터)씨는 "부산은 물론 한국 방문 자체가 처음이지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인상이 들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 왔지만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문화회관 프로그램 오피서



지난 28일 오후 부산민주공원을 단체 방문한 '아시아 리더십 펠로' 멤버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 시마무라 나오코씨도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자 목적은 개인의 연구활동 심화는 물론 아시아의 지적 리더들이 대화하고 공동의 체험을 나눔으로써 지역적, 세계적인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조금씩 가지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고 의미 부여를 했다.

펠로는 아니지만 어드바이저(2001~2004) 자격으로 25년 만에 부산을 찾아가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는 한국 출신의 이종원(52·일본 미토대 교수·국제정치)씨는 "그동안 우리는 각각의 문제로만 너무 바빴

다"면서 "이제는 아시아 각 지역이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아시아 각국 간, 아시아인들끼리의 협력인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글로벌화를 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시아 리더십 펠로'는 일본 국제교류기금과 국제문화회관 공동으로 매년 5~8명을 아시아 각국에서 선발해 최종 3개월간 일본에 초청해 왔는데 지금까지 13개국 54명을 배출했다. 한국에서도 4명이 포함됐다.
김영기자 key69@bussanibpo.com
사진=정충희기자 jhp@

공군사관후보생 임관 회제 2편

3대 보라매 가족 탄생 여성군악장교 첫 등장

조부 부친 이어 전태준 소위

성신여대 기악과 졸업... 유혜선 소위



공군 장성행버인 할아버지, 공군 장교 출신 아버지 이어 10여년간 외국 유학생활을 하던 20대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귀국 후 3대째 공군 장교로 임관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마저 버리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모습을 실천한 주인공은 30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사관후보생 114기 임관식에서 임관한 전태준(23·항공기 무기정비·사진 왼쪽) 소위.



"군악 장교가 딱"이라는 생각을 한 뒤에는 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유혜선(25)은 30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공군사관후보생 114기 임관식에서 군악장교로 임관한 유혜선(25) 소위. 그동안 공군에는 군악 특기의 여군 부산에는 있었으나 여성 군악장교는 유 소위가 첫 사례다.

해병대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군인행, 경호원 등 활동적인 직업을 동경해 온 유 소위는 고교 시절부터 이상형 직업이라 생각했던 이들을 직업과도 가려가 있는 음악역(연주)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내 성신여대 기악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꿈과 재능 사이에서 고민하던 유 소위는 같은 과 선배로부터 군악장교에 대한 소개를 들게 됐고 꿈과 재능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군악 장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유 소위는 공군에 여성 군악장교를 모집할 때까지 대학 졸업 후 1년이라는 긴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고 시·미칭을 우리 공군사관사 회차의 여성 군악장교라는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유 소위는 "공군 최초 여성 군악장교라는 타이틀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주위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기자 sun117@**

APEC 행사 재난 대비에 만전

이기환 선임 부산시 소방본부장



1일자로 선임 부산시 소방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기환(60) 소방령장 대령(소방)의 취임 임명식은 단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였다.

이기환 본부장은 "APEC 정상회의는 부산이 항만·물류도시로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행사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시민민원처리 업무추진부, 구급구조지원부, 화재대응, 구급인력의 자기개발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정보화시대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점차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산시 소방본부는 조직전체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해 미래형 재난에 앞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임 이기환 본부장은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0년 소방간부후보 27기로 임용된 뒤 대구동부소방서장을 거쳐 부산 소방본부 방호과장, 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진국기자 gbook7@**



구평희 티 명예회장 팔순연 구 허씨 경영인 오랜만에 한자리

재계 원로인 구평희(사천 가문) 티 명예회장 팔순연을 맞아 구씨와 허씨 경영인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볼룸에서 열린 구 명예회장의 팔순 축하연에는 LG와 LS그룹의 1,2,3세 구씨 경영인들과 LG에서 계열분리된 GS그룹의 허씨 경영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황**



현대중 노조위원장 부인, 새 컨테이너선 명명

현대중공업이 이례적으로 노조위원장 부인을 새로 건조한 컨테이너선 명명자로 선정해 화제다. 이 회사 탄핵수 노조위원장의 부인 배덕남(45)씨는 30일 오전 독일 리터

라이 클라우스 피터 오펜(Roederei Claus-Peter Offens)사의 5천400 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이 선박을 '산타 필리파(Santa Philippa)' 호로 명명했다. **이성희기자 kb77@**

"큰 물에서 놀아라!"

대한민국 입시 학원의 자존심
강남정철학원이
부산에 옵니다

아무리 읽고 호르지 않는 우리 자녀의 학습능률, 후시 허아 못한 하고 있지 않나?
재미도 안 시스먼 한, 우리 자녀의 수준은 달라진다.
최고의 학습관리 시스템을 자랑하는 디지탈리츠학과 강남 정철학원입니다. 부산에 옵니다.
인문인 학습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입시특수교육!
입문교육부터 세심한 강의를 시스먼 교육 비책은 부산 특화입니다.

- 디지탈리츠 학습 관리 시스템
- 체계적 내신관리 및 수준별 맞춤 교육
- 3단계 반복 학습 습관
- 학원식리두 노트 작성
- 전국 규모의 평가 클리닉 학습
- 인터넷을 통한 원격 학습
- 최고의 강사진 및 학습 컨설팅

신입생 모집중

- 기금정철학원 891-7655
- 영도정철학원 404-3967
- 남구정철학원 636-1005
- 용호정철학원 624-7614
- 당김정철학원 894-7474
- 주례정철학원 325-5297
- 동구정철학원 467-3980
- 한신정철학원 206-5629
- 시하정철학원 202-1140
- 학정정철학원 325-7780
- 다대정철학원 265-5228
- 영남정철학원 063.33-3141
- 연세정철학원 504-2255
- 부산시(사)정철학원 896-9100